

# 제7장 근 대

## 1. 근대화의 추진과 위정척사운동

### 1) 개항과 근대화의 추진

19세기 후반은 안으로는 세도정치에 의한 국정의 혼란과 삼정의 문란에 의한 민생의 파탄으로 민란이 빈번하게 일어났으며, 밖으로는 서양세력이 중국과 일본의 문호를 개방 시키고 조선으로 몰려드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시기에 집권한 흥선대원군은 외세의 침투를 막기 위하여 국방력을 강화하고, 열강의 통상요구를 거절하는 수교통상거부 정책을 추진하였다.

대원군은 병인박해(1866)로 불리는 천주교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을 가하여 9명의 프랑스 신부들과 수천 명의 천주교 신도들을 처형하였다. 병인박해 때 서울에서 체포된 5명의 신도가 오천의 충청수영에서 처형되기도 하였는데, 여기서도 다블뤼, 위앵, 오메르트 등 프랑스 신부 3명이 처형되었다. 당시 9명의 프랑스 신부 중 3명이 충청수영 갈매못 처형장에서 처형되었던 것이다.

흥선대원군은 이어서 병인양요, 신미양요, 오페르트의 남연군묘 도굴사건을 거치며, 전국에 척화비를 세우는 등 더욱 통상거부정책을 강화하였지만, 집권 10년 만인 1873년 민비세력에 의해 물러나게 되었다. 그리고 개항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통상개화론자 등의 대두로 결국 1876년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여 조선은 문호를 개방하게 되었다.

문호 개방 후 조선은 적극적인 개화정책을 추진하였다. 통리기무아문이라는 새로운 기구를 설치하고 군사면에서 종래 5군영을 2영으로 축소하고, 신식군대인 별기군을 창설하였으며, 외국 근대문물을 살펴보기 위하여 일본에 신사유람단, 미국에 보빙사, 청에 영선사 등을 파견하였다.

### 2) 황재현과 백낙관의 위정척사운동

개화정책 추진과 외세의 침략에 대한 반발은 유생층에 의하여 위정척사운동(衛正斥邪

運動)의 형태로 강력하게 일어났다. 위정척사운동은 정학(正學)과正道(正道)를 지키고 사학(邪學)과 이단을 물리친다는 뜻이다. 성리학을 정통사상으로 신봉하였던 조선사회에서 위정이란 정학인 성리학을 수호하는 것이고, 척사란 성리학 이외의 모든 종교나 사상은 배격하는 것이다.

조선말기 전개된 위정척사운동은 4단계로 전개된다. 1860년대의 이항로로 대표되는 외세와의 통상반대운동, 1870년대의 최익현으로 대표되는 왜양일체론에 바탕을 둔 개항 반대운동, 1880년대의 개화파에 의한 정부의 개화정책에 대항하여 이만손의 영남만인소로 대표되는 개화반대운동, 1890년대의 항일의병운동으로 이어졌다.

보령의 황재현과 백낙관의 척사운동은 1880년대 개화반대 운동기에 해당된다. 2차 수신사로 일본에 파견되었던 김홍집은 주일 청국 참찬관 황준헌(黃遵憲)등과 접촉 후 귀국하면서 그가 지은 『조선책략(朝鮮策略)』을 가지고 와서 고종에게 바쳤다. 내용인즉 조선이 자강하기 위해서는 서양 여러 나라들과 수교통상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하고, 조선의 당면 외교정책으로 친중국(親中國) 결일본(結日本) 연미국(聯美國)하여 러시아를 방어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1880년대 위정척사운동이 전개되었고, 이를 신사위정척사운동(辛巳衛正斥邪運動)이라고도 한다.

1880년 11월 병조정랑 유원식의 상소, 1881년 2월 경상도 유생 이만손의 영남만인소는 신사년(1881)의 척사운동을 선도하였다. 신사년 전국적으로 계속되는 척사상소에 정부는 엄벌로써 대하는 한편 척사자제를 천명하는 윤음(綸音)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상소는 계속되었고 1881년 7월 강원도 유생 홍재학의 만언척사소(萬言斥邪疏)는 내용이 과격하고 격렬하여 집권자들을 격노시켜 홍재학은 능지처참형에 처해지게 되었다.

이때 보령의 무과 급제자 황재현이 1881년 3월 23일 척사상소를 올렸다. 그는 다음과 같이 외세의 압박에 의한 위기의식을 분석하고 있다.

오늘날 세상의 대세를 논한다면 중국이 천하를 호령하지 못하는 반면에, 바다를 사이에 두고는 러시아, 프랑스, 미국, 영국 등과 같은 나라의 세력이 크게 자라나 무도한 짓을 제멋대로 하고, 때때로 전쟁을 일으켜 중국과 겨루고 있으니 혹시라도 그런 세력들이 우리나라와 같은 작은 나라를 침범한다면 그 걱정은 마치 태산으로 계란을 내리 누르는 형세와 같을 것입니다. 또 비슷이 근사한 소식으로는 황준헌의 조선책략이 있고, 명백한 사실로서는 일본 사신의 행동이 있었으니 참으로 나라가 존재하느냐 망하느냐 하는 위급한 때입니다 .

(중략)

안으로는 훌륭한 장수가 없고, 밖으로는 적의 나라가 많으며 창고는 텅 비고, 무기와 군사는 정예롭지 못하므로 계책을 쓸 수 없고, 형편을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그제서야 비상한 계책을 내어 또 세상에 없던 일을 경영하여 통리기무아문을 설치하고 사신의 행장을 번거롭게 꾸리니, 그 의도는 바로 이웃나라와 연계를 맺어서 외적을 막고 통상하여 피차 적용하자는 데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니 잘하면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군사를 강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으나 잘하지 못하면 도리어 도적을 불러오고 화를 초래하기 쉽습니다.

(중략)

지금 위에서는 법도를 믿지 않고 아래에서는 법을 지키지 않아서 백성들이 흩어진 지 오래 되었습니다. 대체로 백성들의 뜻은 언제나 다스리는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에 달려 있는데, 8도의 감사로부터 360개 고을의 수령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어질고 착한 정사는 모르고, 오직 백성들에게서 빼앗지 않고는 성이 차지 않는 학정(虐政)으로 서로들 백성에게서 취하려고만 하므로 온 나라의 백성들이 모조리 물과 불 속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 상소에서 황재현은 밖으로부터의 열강의 군사적 위협, 내부에서의 개화정책에 의한 외세유인, 그리고 관리들의 부정부패로 인한 민심 이반을 위기상황으로 규정하고, 자신이 무과출신답게 이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다음과 같이 적극적 군비책(軍備策)을 제시하고 있다.

군사에 관한 정사는 다섯 가지가 있으니 장수를 선택하는 것이 첫째이고, 진법(陣法)을 연습하는 것이 둘째이고, 먹을 것을 저축하는 것이 셋째이고, 병졸을 단련시키는 것이 넷째이고, 청야(淸野) 전술이 다섯째입니다. (중략) 오늘의 형세는 불가불 먼저 지키고 나중에 싸우지 않을 수 없는 것이며, 먼저 지키는 방도는 백성들의 보루를 쌓는 것만 한 것이 없습니다. 그 법은 위로는 나라를 위하여 적을 방어할 수 있고 아래로는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고 생업을 안정시킬 수 있는 것으로서 간단하면서도 세상 이치에 맞는 것입니다.

이러한 황재현의 척사론은 당시 위정척사론자의 입장에서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의 결론은 외양(外攘) 즉 외세와의 싸움보다는, 먼저 내수(內修) 즉 민보(民堡)를 통한 내부적 정비를 먼저 하는 성리학적 내수외양론(內修外攘論)에 바탕을 둔 대응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어서 1882년(壬午) 5월 24일 보령 남포의 유생 백낙관이 남산에 봉화를 올리면서 상소를 올려 승정원에 접수되었고 왕에게 보고되었다. 신사위정척사운동 시 포의(布衣-벼슬하지 않음)로서 상소한 것은 그가 유일하다.

그의 상소문의 핵심은 당시의 개화정책을 추진하는 집권세력을 난신적자(亂臣賊子)로 규정하면서 그들을 처단할 것을 주장하는 내용이다.

오늘 조정의 신하들 중에는 공자 맹자 정자 주자의 학문을 배우면서 예수 마암의 교를 좋아하는가 하면, 부모나라의 곡식을 먹으면서 왜놈이나 서양 옷을 입고 있습니다. 문명한 사람을 오랑캐로 만들고 오랑캐와 강화를 주장하여 나라를 팔아먹고 개인의 욕심만 채우면서 공적인 일에 해를 줍니다. 결국 전하를 이렇게까지 그른 데로 이끌어왔습니다. 신이 죽여야 할 사람들을 죽이지고 청하다가 죽이지 못하면 신이 도리어 처단된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지만 어찌 죽는 것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리고 조선책략과 일본의 침략의도를 비난하고 있다.

황준헌(黃遵憲)은 화방의질의 패거리로서, 애초에 우리나라를 찢어 일본과 결탁하고 미국과 연합하여 중국과 가까이 함으로써 러시아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일본과 우리나라는 백대를 내려오면서 원수진 나라이므로 애당초 결탁할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와 미국과는 아득히 떨어져 있는 나라인데 연합하여서는 무엇하며, 중국은 우리가 이미 300년 동안 섬겨오는 나라인 이상 특별히 더 가까이 지낼 도리는 없는 것이고, 러시아와 우리나라는 서로 말썽 없이 지내는데 무슨 걱정할 문제가 있겠습니까. 이런 까닭으로 황준헌의 말들이 의심스럽습니다.

백낙관은 이러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화이론적 사고방식으로 우리의 역사 속에서 찾고 있다.

옛날 고구려 때에는 수양제나 당태종의 강대한 적들도 모두 패배 당하고 돌아감을 면치 못하였습니다. 우리 왕조에 와서도 일본이 여러 번 침략해 왔습니다만 그때마다 참패를 당하고 도망쳐 갔습니다. 수레가 서쪽으로 피난하여 중국에 가려고 하였는데, 마침 명나라의 구원을 받았고, 또 이항복 이덕형 이순신 광재우와 같은 신하들은 모두 나라의 중흥을 보좌한 데서 가장 현저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중략) 인조 때 오랑캐의 한(汗)이 황제로 자칭하자 김상용 김상헌 홍익한 오달제 윤집 등은 의리를 가지고 배격하면서 계책을 세워 방어할 것을 주장하였고, 이때 임경업은 의주를 지키고 중도에서 맞아 싸웠으니 실로 한 사람이 백을 당하는 막강한 기세였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 청구(靑邱)에는 술수를 잘하는 신하, 훌륭한 장수, 열사, 용감한 백성들이 없었던 때가 없었으니 실로 천하의 강국이었습니다. 그 흥폐성쇠는 임금이 그들의 말을 잘 듣고 안 듣고 그리고 그 계책을 잘 사용하고 안하고에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백낙관은 국가적 위기극복은 조선책략과 같은 반성리학적이고, 외세침략을 조장하는 서양문화를 배격하고, 외세와 손잡고 나라를 망치려는 개화관료들을 처단하고, 왕과 왕비도 그동안의 잘못을 반성하고 바른길로 나아가며, 역사 속에 나타난 조상들의 국가수호의 굳센 의지를 지킨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백낙관은 신사척사운동 시 유일하게 포의로 상소문을 올렸으며, 당시 유생들이 상소의 방법으로 전개하였던 집단 복합상소를 충청도 지역에서 주도하였고, 이것이 실패하자 남산 봉화 후에 단독으로 올린 상소에서는 권력의 예민한 부분인 세자 책봉 문제를 들어 개화정책을 추진하는 왕과 왕비를 규탄하고 집권 개화파들을 격렬하게 비난하였다가 임오군란이라는 정치사건에 휘말려 결국은 참형을 당하게 되었으니, 신사척사상소와 관련하여서는 전국적으로 흥재학에 이어 두 번째이고, 충청도 지역에서는 최초의 희생자가 된 것이다.

황재현·백낙관의 척사운동은 병인·병자척사운동 때부터 지속되어 온 화이론에 바탕을 둔 성리학적 내수외양정신(內修外攘精神)을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외세와 개화정책에 대한 저항, 집권세력과의 갈등, 조선책략에 대한 비판, 국왕비판 등의 당시 전국 유생들의 일반적 내용과 같은 맥을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보령지역의 위정척사운동은 면면히 이어 오는 보령지역 유생들의 성리학적 질서를 바탕으로 한 국가수호의지를 보여 주는 것이었으니, 그것은 얼마 후 황재현의 을미의병 참여와 남포성 전투로 이어지면서 한말 보령지역 의병운동에 깊은 영향을 미치게 되고, 더 나아가 유럽 항일운동의 바탕을 이루게 되었다.

## 2. 동학농민운동

조선후기인 1861년 최제우는 유·불·선과 인내천 사상에 바탕을 두고 인간 평등과 존엄성을 내세우며 동학을 창시하였다. 더 나아가 동학은 조선왕조를 부정하고 서양과 외세를 배격하였다. 이와 같이 민중적이고 민족적인 동학이 창시되자 따르는 신도들이 급속도로 늘어나 삼남지방의 농촌지방에 확산되었다. 그러나 최제우는 흑세무민한다는 죄명으로 처형되었다. 그 후 2세 교주 최시형에 의해 교단 조직이 확대 강화되어서 교조신원운동이 전개되었다. 교조신원운동의 보은집회를 계기로 동학도들은 동학중심의 종교운동을 농민중심의 정치운동으로 전환시켜 갔다.

1894년(고종31) 전라도 고부에서 지방관의 탐학에 대항해 일어난 민란을 발단으로 동학농민운동이 전개되었다. 이 운동은 점차 충청 전라 각지의 동학교도와 농민들까지

이에 호응하였고, 특히 전라도 전역으로 확대되었다.

전라도 지역의 동학군은 여러 곳에서 관군을 무찌르고 마침내 전주를 점령하였다. 외세를 몰아내고 부패한 정치를 바로잡겠다는 동학농민군은 청·일 양국군이 출동하자 그들에게 간섭의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 농민군의 요구를 들어주겠다는 정부와 화약을 맺고 일단 해산하였다. 이것이 동학군의 1차봉기였다.

그러나 약속 이행이 지연되고 일본군의 침략적 행동이 강화되자, 철퇴를 내세우고 남접과 북접의 동학군이 다시 쫓기하여 일본군과 항쟁하였다. 그러나 공주 우금치 전투에서 패전하고 전봉준 등의 지도자들이 체포되어 동학농민운동은 민중의 소망을 이루지 못한 채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이것이 동학군의 2차 봉기이다.

동학은 충청도 지역에서도 큰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다. 1차 동학군의 봉기가 일어났을 때는 충남지방에서 회덕, 진잠, 공주, 은진, 한산, 비인, 연산, 서천, 서산, 홍성, 당진, 먼천, 전의, 연기, 정산, 보령 등에서 호응하였다.

동학농민군이 2차로 봉기하면서 전라도 지역의 남접군이 북상하여 오자 충청도 지역의 북접이 호응하면서 충청도 각 지역에서도 동학농민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2차 동학농민군이 충청도 지역에 진출하자 이를 진압하기 위하여 관군과 함께 일본군이 증파되었다.

이러한 동학농민운동의 전개에 있어 보령지방은 조직적인 농민군의 활동이나 관군의 조직적 진압에 관한 기록은 아직 찾아지지 않는다. 다만 단편적인 기록들을 통하여 보령 지역에도 동학농민운동의 여파가 크게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동학군의 1차 봉기 때는 보령지역의 움직임은 보여주는 자료가 없어 내용을 알 수 없고, 2차 봉기 때인 1894년 10월 8일(음) 오천의 수영에서 무기를 탈취한 한 무리의 동학군이 홍주로 진격하다가 광천에서 호연초토사 겸 홍주목사 이승우의 관군과 전투를 벌였으나 패하였다. 이 때 수영에서 탈취되었던 대포 30여 문이 다시 관군에 노획되어 홍주성의 방어에 보충되었다.

당시 충청도 서북부 지역에는 훗날 천도교 4대 교주가 된 박인호(朴仁浩)에 의해 포교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남포에서는 추용성과 김기창(金起昌)이 박인호에 의해 포덕 입도케 되었다. 추용성은 보은집회 당시 남포의 접주로 활약하며 참여하였다. 이때 보은집회는 전국의 접주가 참여하여 최시형을 중심으로 집회를 열고 있었고, 전라도 고부 접주는 전봉준이었다. 그리하여 추용성과 김기창에 의해 남포지역에 동학이 많이 포교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1894년 8월6일(음) 선무사(宣撫使)가 홍주에 내려와 경내의 접주들을 모아 효유(曉諭)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조정에서는 미리 호서지역의 동학군의 봉기를 미리 예방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볼 수 있고 이때 보령접주 이원백과 남포접주 추용성도 참여하였다(初六日宣撫使到州招集境內所謂接主者宣讀者綸音而曉諭之是時有名之魁不可盡記而最其尤洪州金永弼丁大哲李漢奎鄭元甲羅成蕾德山李春實禮山朴德七朴道一大興俞致教保寧李源百藍浦秋鏞成定山金基昌沔川李昌求也 -洪陽紀事- ).

남포현에서는 추용성(秋鏞聲)(吳知詠 東學史)과 김우경(金禹卿)(주한일본공사관 기록)이 기병하여 동학농민군의 지도자로 활약하였다. 한편 보령현 지역에서는 이원백(李源百)(洪陽紀事)이 접주로 활동했다. 그러나 1894년 10월 21일(음) 남포 도화담에서 수접주 추성재 · 이우성 · 이성구, 접주 추용성 등이 관군에 체포되었다. 추용성은 이속(吏屬)이었다.

홍주 등 충남 서북부 지역의 동학군이 진압된 뒤인 1894년 12월 이후에도 보령 · 남포의 동학도들은 남접의 영향을 받은 서천 · 한산 등의 동학군과 연계하여 홍주를 공격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일본군과 관군의 경계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리하여 한산 서천의 동학군 진압에 나섰던 서산군수 성하영(成夏永)이 지휘하는 관군이 주둔하였고, 그들과 산발적인 전투를 전개하기도 하였다.

동학농민운동 당시 지방의 사족들은 농민군을 격퇴하기 위하여 유희소(儒會所)를 설치하여 보부상군 등과 함께 진압에 나서게 되는데, 보령과 남포에서도 11월에 유희소가 설치되어 동학군 진압에 나섰다. 이때 유희소 조직을 허락받은 곳은 보령 오삼전면 은현(保寧吳三田面隱峴)과 남포 삼계 지곡(藍浦三溪池谷)의 조승지가(趙承旨家)였다. 조승지가는 미산면 삼계리의 양주조씨 집안으로 보인다. 삼계리에는 양주조씨가 입향하여 이 당시 조병덕의 손자들이 문과에 합격하고 관직에 진출하고 있었다.

그리고 갑오군공록에 오른 사람은 남포유학 이종륜(李鍾崙)이었다. 갑오군공록에 의하면 그는 남포유학으로서 재물을 내고 사람들을 모아서 동학군을 격퇴하는 데 공을 세웠다(藍浦幼學李鍾崙捐財募衆擊退劇匪)고 하였다. 이종륜은 남포현에 거주하던 성주이씨의 인물로 그의 형 이종국(李鍾國)도 홍주 관군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충청 서북지역 관군의 최대 참패로 끝난 예산 신례원 전투에 참여하였다가 전사하기도 하였다.

또 갑오군공록에 오른 사람은 남포유학 임의준(任義準)이었다. 갑오군공록에 의하면 그는 유희군 조직에 앞장섰으며, 동학군을 소탕하였다(藍浦幼學任義準先倡儒會巡勦匪黨)고 하였다. 임의준은 남포현에 거주하는 풍천임씨의 인물로,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자 남포현감 민경훈(閔景勳)과 약속하고, 임상호(任尙鎬) · 임학준(任學準) · 김성희(金成喜) · 채성구(蔡聖龜) · 최돈욱(崔敦郁) · 이병제(李秉濟) · 조정순(趙靖淳) 등의 지역 유림과 함께 거의하여 홍주성에 가서 동학군을 소탕하는 데 앞장섰다.

또한 남포유학 채상오(蔡相五)도 비인 판교에서 동학군을 여러 명 체포한 공로로 갑오군공록에 올랐다.(藍浦幼學蔡相五庇仁板橋捉匪數)

동학농민운동 당시 남포지역에서 의병을 일으켜 동학군을 진압하는 데 참여한 사람은 김홍제(金洪濟, 前僉使, 3품)이며, 보령지역에서 의병을 일으킨 사람은 박홍양(朴鴻陽, 前 定山郡守, 3품)이었다.

### 3. 갑오개혁과 지방제도의 개편

#### 1) 갑오개혁과 지방제도 개편

1894년 조선은 개화파의 노력과 일본의 강요에 의해 갑오개혁을 추진하였다. 갑오개혁에서 정치제도 분야의 개혁을 통하여 중앙관제와 인사제도 개혁이 일단락됨에 따라 지방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에 착수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조선시대에 오랫동안 지속되어 오던 지방행정 제도가 갑오개혁을 통하여 근대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 지방제도의 개혁은 갑오개혁 최후 사업으로 추진된 것으로서, 내무아문은 이 지방제도 개혁안을 작성하기 위해 관하 각도의 행정실무자들로부터 각도의 연혁과 현황을 듣고 그것의 조사에 착수했지만, 지방의 행정구역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이 개혁은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당시 내무대신으로 정치적 영향력이 컸던 박영효가 개혁을 적극 추진했기 때문에 개혁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애로를 극복하고 1895년 5월 26일에 도제폐지(道制廢止)·지방제도 개혁 및 지방관제가 공포되어 다음달 윤5월 1일부터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은 지방제도의 개혁으로 8도의 감영(監營)·안무영(按撫營)·유수부(留守府)를 폐지하는 동시에 각도의 관찰사와 안무사 및 각 부(府)의 유수 이하 지방관을 모두 폐지하는 한편 소지역주의(小地域主義)를 채택하여 전국을 23부(府)로 개편하고 종래의 부·목·군·현 등 대소의 행정구역을 폐합하여 군(郡)으로 획일화하여 336군을 신설하여 23개 부의 밑에 분속시켰다.

그리고 군수는 부관찰사(府觀察使)의, 그리고 부관찰사는 내무대신의 지휘 감독을 받되 각부의 주무(主務)에 따라 각부 대신의 지휘 감독을 받게 했다.

신설된 23부 중 충청도에는 홍주부·공주부·충주부가 있었고, 홍주부에는 22개 군이 속했다. 보령지역은 보령현이 보령군으로, 남포현이 남포군으로 개편되어 홍주부 소속으로

되어 보령군수와 남포군수는 홍주관찰사의 지휘 감독을 받았다.

보령군과 남포군이 속했던 홍주부에 딸린 군은 다음과 같다.

#### 홍주부(치소 : 홍주)

홍주군 · 결성군 · 예산군 · 한산군 · 서천군 · 비인군 · 남포군 · 보령군 · 임천군 · 홍산군 · 서산군 · 해미군 · 당진군 · 면천군 · 태안군 · 대홍군 · 청양군 · 덕산군 · 신창군 · 온양군 · 아산군 · 정산군(22군)

이상과 같은 지방제도 개정과 동시에 지방의 각부 · 군관제(各府郡官制)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각부에는 관찰사는 칙임(勅任)3등 이하 또는 주임(奏任)2등 이상으로 하고, 내무대신의 지휘감독을 받아 관할 내의 행정사무를 총리(總理)한다. 각 군의 군수는 관찰사의 지휘 감독을 받아 법률 명령을 관내에 집행하고 관내의 행정사무를 장리(掌理)한다.

또 지방관의 보수체계를 일정하게 규정했는데, 그것은 정부의 만성적 재정 고갈로 중앙관리와 마찬가지로 제대로 소정의 봉급을 지불하기 어려웠을지라도 종래와 달리 지방관의 보수체계를 명문화 했다는 것은 농민에 대한 지방관의 가렴주구를 배제하기 위한 중요한 개혁이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개편은 간편하고 획일적인 것이었으나 실제 행정운영상 불합리한 점이 많았다. 이리하여 다음해 1896년(건양 원년) 8월에 을미개혁의 일환으로 부제(府制)를 고쳐서 수도인 한성부만 제외하고 13도(道) 1목 9부 329군으로 군을 개편하고, 각 부군은 5등급으로 나누어 인원 · 봉급 · 경비를 달리하였다. 이때 개정된 13도제는 오늘날에 이르기 까지 지방행정의 근원을 이루게 되었다.

충청도는 충청남북도로 분리되고 충청남도는 37군으로 공주에 치소를 두게 되었다. 이때 보령군과 남포군은 4등급 군이 되었다. 남포읍지에 의하면 남포군수의 봉급은 700원이었다. 당시 가장 높은 勅任1등 관리가 5,000원이었다.

군 이하의 면 · 리는 조선시대의 전통을 토대로 하고 이에 근대적 자치제의 개념을 가미한 향회(鄉會)제도가 시행되었다. 향회는 지방주민이 당해 지방행정단위의 공공사무 처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었다. 이 향회는 오늘날의 지방의회와 유사한 성격으로 大 · 中 · 小會가 있는데 대회는 郡會, 중회는 面會, 소회는 里會다. 향회에 부의할 사항은 교육 · 호적 · 지적 · 위생 · 사창 · 도로 · 교량 · 식산 · 흥업 · 공공산림 · 흉년 때의 환란상휼 등 다양하였다.

## 2) 오천군의 신설

갑오·을미개혁 과정에서 오천에 있던 충청수영이 폐지되고 여기에 1901년 4월에 오천군(鰲川郡)이 신설되었다. 수영 폐지 이후 오천군이 신설된 배경은 수영의 주민 박계영(朴啓榮) 등이 소장(訴狀)을 올린 데서 발단이 되었다.

이에 의하면 충청수영은 산이 다하고 바다로 둘러싸인 지역이어서 농토가 없는 관계로 여기의 많은 사람들은 오랫동안 일생을 영속(營屬)을 업(業)으로 삼아 눈으로 익히고 귀로 들어왔는데, 갑자기 폐지되니 떠돌며 구걸하는 신세가 되었다. 충청수영은 원래 충청도의 가운데 위치하여 요충지이기 때문에 과거에 수영이 설치되고, 지금도 영보정 아래에는 어떤 운선(輪船)이라도 무난히 정박할 수 있는 곳이다. 여기에 전라도 완도와 진도의 예에 따라 구획을 획정해서 군을 설치하고 여러 섬을 결호(結戶)로 새로이 올리면 상납과 신설군 경비를 충당할 수 있으니 백성은 편안하고 나라는 이득이다. 그리고 폐지된 수영의 영속(營屬)과 보령의 이민(吏民)이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아 합치기 어려운 정상도 참작하면 군을 설치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러한 건의로 군청은 폐지된 수영에 설치하고, 관할구역은 보령군 김신면, 홍주군 용천면, 그리고 안면도 원산도 황도(荒島) 월도 육도 묘도 소도 고대도 효자도 내장고도 저도 두지도 대야도 외장고도 외감도 삼시도 불모도 녹도 호도 외연도 황도(黃島) 어청도 태안군의 거야도 가의도, 결성군의 죽도, 서산군의 간월도 비인군의 연도와 죽도, 서천군의 개야도를 오천군에 붙였다.

결국 오천군은 충청수영 폐지가 가져온 후유증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 영역은 과거 충청수영터와 보령현 김신면 지역, 연안 도서지역 그리고 오늘날의 천북면에 해당하는 지역을 포함하였다. 그리하여 오천군은 4등급의 군으로서 천동면·천북면·하남면·하서면을 관할하였다. 원래 천북은 홍주목 용천면 지역이었고, 도서지역도 홍주목 소속이었지만, 1901년의 오천군 신설로 오늘날의 보령 영역으로 포함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오천군이 폐지되고 보령군에 오천면과 천북면으로 편입되었다.

## 4. 의병운동

### 1) 남당·화서학과와 민족운동

#### (1) 남당학과와 민족운동

한원진은 조선후기 율곡과 우암의 학통을 이어받은 기호학파의 대표적인 학자이다.

한원진의 학문적 특징은 인성과 물성이 같을 수 없다는 인물성이론(人物性異論)(湖論)으로, 그의 학풍은 화이(華夷)의 구별을 엄격하게 하는 척이단적(斥異端的) 성격을 띠게 되었다. 이러한 그의 학풍은 그가 홍주 남당리에서 강학했으므로 그를 따르는 제자들을 남당학파라고 한다. 이 학풍은 문인들에 의하여 홍주·보령 등 홍주문화권 지역에 계승되어 19세기 후반 이 지역 유림계의 주요한 학풍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홍성 보령 등 홍주문화권 지역의 문인들은 호론을 철저히 계승하여 한말 이 지역에서의 위정척사운동과 의병투쟁을 주도해 나갔다. 한원진의 학맥이 한말 홍주 보령에 이어진 계기는 정혁신이 한원진을 사숙하여 이예환 백사형·이건운 등에게 전수했고, 이어서 한말 김복한 등에 계승되어 남당학파가 발전하게 되었다.

김복한을 비롯한 이 지역의 유림들은 당문(塘門)이라고 하면서 한원진의 학풍을 따랐다. 이들 남당학파에는 김상덕·이설·김복한·임한주·유호근 심의덕·조구원 김용제·이응규 등이 잘 알려져 있다.

김상덕은 보령 주포면 보령리 출신으로 문과에 급제하고 규장각 직각, 성균관 대사성을 거쳐 홍주부관찰사에 임명되었으나 홍주의병 19명을 석방하고 사직하였다. 1906년 홍주의병 때는 군사장과 참모장으로 참여하였다가 고군산도 유배형을 받았다. 석방 후에는 보령 천북면의 용천으로 이사하여 후학을 양성하며 임금을 사모한다는 의미의 천일대(天一臺)라는 단을 쌓고 매일 서울을 향해 재배하였다.

김복한은 홍주 소향리 출신으로 문과에 급제한 후 관직에 있다가 일제의 침략이 심해지자 관직을 버리고 고향으로 내려와 을미사변과 을사조약에 저항하여 홍주의병을 일으킨 의병장이기도 하다. 그리고 1919년 파리장서운동을 주도하여 옥고를 치르기도 하였다. 그리고 말년에는 보령 청라에 은거하며 후학을 양성하고 자정(自靖)하는 기간을 가지기도 했다. 그의 이러한 민족운동은 한원진의 호론적 학풍의 영향이 컸던 것이며, 그의 내중형 이설과 함께 더욱 철저히 계승하고자 했다. 이설도 문과 급제 후 관직에 나갔다가 사직하고 돌아와 김복한과 함께 의병을 일으킨 민족운동가였다.

유호근은 보령 청라 출신으로 김복한·이설 등과 교유한 학자로 그의 재종제 유준근은 홍주의병의 유병장으로 활약한 인물이다. 1906년 홍주의병 때는 홍주성에 들어가 참전하였고, 파리장서운동에도 가담하였다. 공자와 주자를 만세의 스승이라고 칭송하고, 한원진을 존신(尊信)하는 데 득실을 계산하지 않는다는 소리를 들은 호론을 따른 인물이다.

조구원은 보령 청라 출신으로 동학농민전쟁과 단발령 등을 거치면서 한원진 학설에 감화되었으며, 김복한·김상덕·심의덕·유호근 등과 함께 남당연보를 간행하기도 하였다.

임한주는 청양 출신으로 김복한 등과 함께 파리장서에 참여하였다가 대구 감옥에서 옥고를 치른 인물이고, 이응규는 청라 출신으로 임한주·유호근·김복한 등과 교류하며 호론을 따른 학자이고, 심의덕 또한 보령 동대리 출신으로 김복한·유호근·이설 등과 교류한 호론계의 학자이다.

이들은 모두 김복한을 중심으로 교류를 강화하면서 을미사변 후의 홍주의병투쟁, 을사조약에 대한 저항 및 1906년의 홍주의병투쟁에 참여하였고, 3.1운동과 파리장서운동에 참여하는 등 철저한 민족자존의 의식하에 이 지역 항일민족운동을 이끌어갔다. 그 사상의 중심은 호론 즉 남당학맥이었다.

## (2) 화서학과와 민족운동

화서 이항로(李恒老)를 비조(鼻祖)로 하여 형성된 화서학과는 한말 제국주의 침략이 밀려오는 시대 상황에서 활발히 활동하여 항일운동에 큰 영향력을 미쳤던 대표적 학파 가운데 하나다. 기호계 주리론에 입각한 이항로의 학문은 실천을 전제로 한 강렬한 춘추대의적(春秋大義的) 의리와 명분을 생명으로 하는 존화양이론(尊華攘夷論)에 그 본령이 있었다. 화서학파의 대부분의 인물들이 제국주의 침략에 저항하는 항일운동자로 활동하였던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보령지역에 화서학파가 성립되게 된 것은 1900년 최익현의 정산 이주와, 1888년 이후 윤석봉의 보령 남포 이주가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최익현은 대원군 탄핵상소와 강화도조약 반대 도끼상소를 통하여 유명한 인물로, 정산에 낙향한 이후에도 을사조약 체결에 반대하는 상소를 올리고 노성 켈리사에서 일제에의 세금납부 거부 투쟁을 주동하고, 태인에서 의병을 일으키는 등 항일운동을 유감없이 실천했던 화서 이항로의 제자였다. 최익현은 정산에서 거주한 6년 동안 화서학파의 맥을 호서지방에 심었는데, 그중 보령의 인물로는 백관형·김관제·유준근 등이 유명하다.

최익현과 함께 보령지역 화서학과 형성에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이 윤석봉이다. 윤석봉은 경기도 양주 출신으로 이항로의 제자인 중암 김평묵의 문인이다. 1888년 일족과 함께 서천 비인면 울리로 낙향했다가 1898년 보령 웅천읍 대천리에 이거한 후 주자와 송시열의 영당인 집성당(集成堂)을 건립하고 춘추로 제향하며 춘추의리를 강론하며, 후학을 양성하였다. 1906년 민중식의 홍주의병이 홍주성을 점령하자 김상덕 유호근 등과 함께 홍주성에 들어가 참전하였다가 체포되어 경성감옥으로 끌려가 옥고를 치르기도 하였다.

한편 윤석봉이 웅천 대천리에 세운 집성당은 호서지역 화서학파의 구심점이 되기도 했다. 이 집성당의 창건의 대표 발기인은 윤석봉, 신섭, 조진학이었다. 윤석봉은 김평묵의

제자이고, 신섭도 마찬가지로 김평묵의 제자로 신사년 척사소를 올렸다가 유배에서 풀려난 후 비인에 낙향한 화서학파의 중심인물이다. 그리고 조진학은 주산 거주 학자로 낙론계 학맥을 이은 인물이었다. 따라서 집성당은 화서학파가 중심이 되어 이 지역 학파를 아우르는 유림계의 중심 역할도 하였던 곳이다.

또한 집성당은 지역적으로도 호서지역 향일 유림 교유의 구심점이 되었다. 이곳의 향사를 통하여 지역의 남당학과 인물들인 김복한·이설·유호근·심의덕·임한주·조구원 등과 화서학파인 백관형·이교현·문석환·윤석기·윤명오·유준근 등이 교류하는 기회를 가졌던 것이다. 그 중심에는 윤석봉과 집성당이 있었다.

백관형은 보령 남포 출신으로 윤석봉과 최익현에게 수학하고 1906년 홍주의병 참여, 1916년의 만동묘에서의 향일연설, 1919년의 파리장서운동에 참여한 대표적 향일 유림이다. 그의 문인으로 김지정이 있는데, 그는 웅천 수부리 출신으로 백관형과 함께 파리장서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옥고를 치르기도 하였다.

유준근은 보령 내항동 출신으로 1906년 홍주의병 유병장으로 참여하였다가 대마도의 유배지에서 최익현에게 수학한 인물이며, 파리장서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향일운동을 전개한 인물이다. 또한 유준근과 함께 홍주의병에 서기로 참여한 문석환은 서천 비인 출신이지만 윤석봉과 신섭의 제자로 집성당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유학자였다.

홍주의병진에 참여하기도 했던 이교현은 최익현의 문인으로 부여 외산 장항리 출신이지만 집성당을 중심으로 활동한 인물이다.

원래 보령을 비롯한 호서지역은 남당학파들이 그 학맥을 이어 가고 있었으나, 윤석봉을 중심으로 한 화서학파들이 이주하여 집성당을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남당학파와 화서학파는 서로 교류하면서 호서지역에서 의병운동 등 여러 향일민족운동의 선봉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 2) 을미의병

1895년 8월 민비가 일본 낭인들에 시해된 을미사변이 일어나고, 이어서 을미개혁이 진행되어 단발령이 내려졌다. 민비시해와 단발령에 저항하여 1896년 전국각지에서 유림들의 의병운동이 일어났는데, 이것을 을미의병이라고 한다.

을미의병 때 홍주에서도 안창식·김복한·이설 등을 중심으로 의병운동이 일어났다. 안창식·채광묵 등이 민병을 모집하여 홍주성으로 들어가 창의소를 설치하고 김복한을 수석으로 추대하고 창의소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홍주관찰사 이승우도 함께 거의할 것을

권유하여 이승우는 ‘홍주목사겸창의대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참여하였다. 그리하여 송병직·채광목·이세영·조의현 등으로 하여금 의병소모와 산성수리를 위한 임무를 맡겼다.

그러나 다음날 관찰사 이승우는 세가 불리함을 깨닫고 배반하고 말았다. 유생들의 권유와 위협에 마지못하여 거의에 참여는 했으나 실패를 두려워하였던 것이다. 김복한·이설·안병찬·이상린 등을 구금하고 상부에 보고하였다. 김복한 등은 경성으로 압송되어 재판을 받은 후 석방되었다.

이후 김복한은 보령 청라의 길현(吉峴)으로 이사하여 쓰러진 집과 무너진 담장에 벌레와 뱀이 나와도 편안하게 지내면서 후학을 지도하고 지역의 유림들과 의리를 강론하였다. 그리고 1906년에는 민종식 의병진에 참여하고, 1907년에는 민심을 선동한다는 죄로 경무청에 감금되기도 했다가 다시 10여 년 만에 홍성 산수동으로 돌아왔다.

홍주의 을미의병 실패 후 여러 곳에서 재기가 시도되는 상황 속에서 이 의병진에 참여하였던 이세영은 홀로 홍산으로 빠져나와 재기를 준비하였다. 그리고 1896년 2월 남포에서 의병을 다시 일으켰다. 이때 같이 거사한 인물들은 황재현·이관·김홍제 등이었다. 이 거사는 성공을 보지 못하고 패하고 말았다. 이세영 등 홍주지역 유생들의 끈질긴 항쟁의 모습이 남포지방까지 이어진 것이다. 그러나 남포의병의 자세한 전말을 알려주는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 그 내용은 알 수 없다.

이 거의가 실패로 끝난 후 김홍제는 체포되지 않고 서울로 빠져나가 을미사변을 주도했던 친일파 제거 계획을 추진하다가 발각되어 고군산도로 유배되었다가 돌아온 후 훗날 국채보상운동을 주도하였다. 김홍제는 국채보상운동 전에 김광제로 개명하였다. 보령 웅천 평리 출신으로 일찍이 무과에 급제하고 관직에 나간 인물이었다.

한편 황재현은 보령 웅천 출신으로 무과에 급제한 후 관직에 나갔다가 1881년 위정척사상소를 올린 것이 원인이 되어 금갑도(진도)에서 유배생활을 한 후 돌아와 고향에서 은거하고 있던 인물이었다. 그는 이세영과 함께 남포의병을 일으켰으나 실패한 후 체포되어 남포감옥에 수감되었다. 이때 지역의 유림들은 그의 우국충정하는 정신을 높이 사서 남포군수에게 청원서를 내어 몇 달 후 그는 석방되었다.

유림들이 올린 탄원 상소문 일부를 통하여 그의 의병활동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아! 왕비를 시해한 極逆은 천지의 대변고였습니다. 온 나라의 신민된 자는 마땅히 위로는 천자에게 알리고, 아래로는 방백(方伯)을 깨우쳐서 청토복수(請討復讎)해야 마땅하나 시행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의려(義旅)에 의지해서 뜻을 펴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또 하물며 훼손지화(毀形之禍)가 백성에게 두루 미쳐 국모의 원수를 복수하고 임금의 옥보임 당함을 씻은 후에 그 후환을 막으려 하니 의병은 그만둘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 고을

황재현은 본래 忠義慷慨之士로 辛巳之禍에 의로운 선비들이 쫓겨나고, 귀양 가고, 죽음을 당하는 것을 보고 떨쳐 일어나 자신의 한 몸도 돌보지 아니하고 상소문을 대궐에 올렸으나 붙잡혀서 중죄의 율법으로 처벌되어 섬에 귀양 갔다가 다시 세상에 풀려나서도 기절이 꺾이지 않아 지금도 구렁에서 죽을 것도 돌아보지 아니하는데, 진보다 몇 만 배나 더한 국가의 변고를 당한즉 어찌 이 사람이 안방에 누워있겠습니까. 지난날의 의병 거사는 대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그때 (남포)군수님이 의병에 협조해 달라는 황재현의 청을 특별히 허락하여 맹주가 되었다면 반드시 장차 三南의 적을 쳐서 한사람의 흉적들까지도 제거하였을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황재현은 의병을 일으켜 하나의 읍이라도 단속하여 후환을 방어하고자 한 것이니 그 뜻은 가히 크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사위정척사운동에 참여한 황재현이 15년이 지난 1896년의 의병대열에 참여하였다는 사실은 의병투쟁을 위정척사운동의 발전적 전이로서 이해하게 해주는 한 전거를 제공해 주기도 한다.

의암 유인석이 강원도에서 의병을 일으켰을 때, 유인석과 화서학과 동문(同門)으로 용천에서 활동 중이던 윤석봉(尹錫鳳)은 유인석에게 황재현을 고을의 한 모퉁이를 맡겨도 능히 담당할 인물이라고 하면서 천거하였다.

그리고 윤석봉은 유인석이 을미의병 당시 강원도와 충청북도에서 거병하자 지역의 여러 유생들과 함께 연명으로 격려문을 보내기도 하였다.

### 3) 병오 홍주의병

1905년 11월 을사조약으로 대한제국의 주권이 일제에 의해서 강탈당하자, 1906년 1월 청양 정산에 내려와 살던 전 참관 민종식을 비롯한 지사들은 의병을 일으켜 홍주성을 공격하여 일제에 대항하기로 하고, 3,000여 명의 의병을 모아 예산군 광시면 광시장터에 모였다. 이 때 참여한 인물은 민종식(閔宗植)·정재호(鄭在鎬)·박윤식(朴潤植)·박창로(朴昌魯)·안병찬(安炳瓚)·최상집(崔相集)·최선재(崔璇在)·이상구(李相龜)·이세영(李世永)·채광묵(蔡光默)·이만직(李晩植) 등이었다.

의병진이 갖추어지자 민종식은 광시를 출발하여 홍주 동문(조양문) 밖 하우렁에 진을 치고, 홍주성을 공격하였으나 실패하고, 다시 광시장터로 퇴각하여 군제를 바로잡고 공주를 공격하기로 하였다. 의병진이 공주를 향하여 진군하여 선두부대가 청양군 비봉면 중목리 묵방 마을에 이르렀을 때 척후병이 공주 병력과 경병(京兵)이 청양읍에 도착하여 휴식 중이라 보고하였다.

이에 민종식은 진로를 바꾸어 청양군 화성면 화성장터로 가서 진을 치고 하룻밤을 지냈다. 그날 공주 병력이 주민들에 대한 탐문을 통하여 의병진의 위치를 알아내어 화성으로 쳐들어왔다. 그들은 의병이 진을 친 부근에 잠복했다가 밤을 틈타 총격전을 벌였다. 여기에서 민종식을 비롯한 의병들은 대부분 도망을 갔고, 23명이 체포되었다.

그 후 1906년 3월 민종식의 처남으로 부여군 구룡면 죽절리에 살던 이용규(李容珪)는 화성에서 흩어졌던 동지들과 전주·진안 등지에서 의병을 모아 서천으로 들어왔고, 이어서 남포(藍浦)·오천(鰲川) 등지를 다니며 식량을 모아 홍산에서 기병할 준비를 하였다.

1906년 음력 4월 19일(양 5. 12) 홍산 지터(현 부여군 내산면 지터리)에서 민종식을 대장으로 하여 다시 기치를 높이 들고 두 번째로 의병을 일으켰다. 《의사 이용규전》에는 홍산에서 기병할 때의 부서를 다음과 같이 밝혀 놓았다.

대 장(大將) : 민종식(閔宗植)

참모장(參謀將) : 김광우(金光佑) 조희수(趙義洙) 채광묵(蔡光默)

중군장(中軍將) : 정재호(鄭在鎬) 황영수(黃英秀) 이세영(李世永)

유격장(遊擊將) : 채경도(蔡景燾)

좌군관(左軍官) : 윤필구(尹弼求) 윤병일(尹炳日) 송순묵(宋淳默)

우군관(右軍官) : 이병년(李秉年) 이범구(李範九) 홍순대(洪淳大)

소모장(召募將) : 지우범(池禹範)

소모관(召募官) : 이만직(李晩植)

수문장(守門將) : 최선재(崔璇在)

수성장(守城將) : 조병순(趙炳舜) 박영두(朴永斗)

선봉장(先峯將) : 이남규(李南珪)

후군장(後軍將) : 정해두(鄭海斗)

서 기(書記) : 문석환(文奭煥)

운량관(運糧官) : 박방현(朴方賢) 성재평(成載平)

향 관(饗官) : 박윤식(朴潤植)

좌우소모장 : 최상집(崔相集) 엄순영(嚴淳永)

좌익장(左翼將) : 이상구(李相龜)

우익장(右翼將) : 신현두(申鉉斗)

참 모(參謀) : 안병찬(安炳贊) 박창로(朴昌魯) 안항식(安恒植) 신보균(申輔均)

유병장(儒兵將) : 유준근(柳濬根)

유병소 양관(儒兵所養官) : 민정식(閔廷植)

유격장(遊擊將) : 김광현(金光鉉) 윤상보(尹相普)

참모사(參謀士) : 이동규(李東珪) 이식(李奭) 남계원(南啓元) 안병림(安炳琳) 안교헌(安敎憲)  
박시림(朴始林)

돌격장(突擊將) : 남계원(南啓元) 안병림(安炳琳) 곽한일(郭漢一)

이들은 홍산을 점령한 후 서천 구병동으로 행군하여 하룻밤을 자고, 이튿날 비를 무릅쓰고 문장동으로 가서 또 하룻밤을 자고 서천읍을 공격하였다. 이때 의병이 천여 명이였다. 여기서 며칠을 머무르며 양총을 빼앗고, 군수 이종석(李鍾錫)이 의병의 요구를 듣지 않자 체포했다가 놓아 주었다. 이종석은 몰래 일본군과 내통하여 의병을 도적이 침입했다고 하여 많은 일본군이 모여들도록 했다.

다음날 비인을 함락하고 웅천을 거쳐 4월 22일(양 5. 15)남포성에 들어갔다. 이때 의병수는 2천으로 늘었다. 남포에서는 치열한 싸움이 전개되어 2-3일 동안 공방전을 벌이며 남포성을 점령하였고, 남포병력 31명이 의병진에 귀순하였다. 그리고 주산면 간치 장터에 있던 유희병사 33명도 영입하였으며, 윤석봉(尹錫鳳)·윤석기(尹錫祺) 등 인근의 선비들이 참여·격려차 남포성으로 들어왔다. 이어서 민종식은 대천 내항동에 살던 유준근(柳濬根)을 초청하였으며, 병중이었던 유준근은 기꺼이 참여하였다.

보령지역의 당시 상황은 황성신문(1906. 5. 21)에 의하면 ‘의병대장 민종식 등 200여 명이 5월 14일부터 남포에 집결하여 남포군수를 협박하고 무기와 전곡(錢穀)을 빼앗았고 일본인 3명을 체포하였으며, 또 의병이 보령군수에게는 병사 70여 명, 돈 1만 냥, 마필 약간을 내놓으라고 강요하므로 군수가 응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피신해 버렸고, 일본인 1명이 체포되었다’고 하였다.

또 황성신문에 5월 초순부터 남포지역에 의병 400여 명이 촌가를 돌아다니고 있어 이들을 진압하기 위해 공주에서 관군을 파견한다는 내용, 미산 평라리 등에 의병이 출몰하고 있어 정찰을 강화한다는 기사가 있는 것으로 보아 당시 보령지역에서 많은 의병들이 모집되어 민종식 의병진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1906년 4월 26일(양력 5. 19) 의병진은 보령·결성을 거쳐 홍주에 진격하여 삼신당리에 이르러 일본군과 싸워 이기고, 성중(城中)을 향하여 포화를 퍼부었다. 남문 성벽에 의지하여 저항하던 일본군은 우세한 의병진의 공격을 감당하지 못하고 거류 일본인들과 함께 북문으로 탈출하여 예산 덕산 쪽으로 달아났다. 홍주성을 점령한 의병진에서는 곧 백성들을 안정시키고 진용을 정비하여, 소를 잡아 하늘에 제사 지내고, 피를 마시며 구국 전투에 몸 바칠 것을 맹서하였다.

이어서 윤 4월 7일에는 곽한일·남규진 등의 의병이 홍주성에 합세하여 들어왔다. 소모된 병사도 늘어났고, 주민을 동원하여 성을 보수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윤4월 9일

(양 5. 31) 일본군의 공격으로 홍주성의 의병진은 무너졌다. 이 과정에서 민중식은 피신하였지만 의병 140여 명은 왜병의 포로가 되어 홍주에서 3일간 혹독한 심문을 받은 후, 그 가운데 의병활동의 중심에 섰던 78명은 윤4월 16일 다시 경성 일본군 사령부로 압송되어 갔다. 천안까지는 걸어서, 천안에서 서울까지는 기차를 타고 윤4월 18일 서울에 도착하여 2달간 투옥생활을 하면서 또다시 혹독한 심문을 받아야 했다. 그리고 최후로 의병운동의 중심에 섰던 인물들로 인정된 9명은 일본 대마도로 끌려가 유배 생활을 하게 되었다. 대마도에 끌려가 유배형을 당했던 최상집 유준근·이식·안항식·신보균·신현두·이상구·문석환·남규진 등 9명을 ‘대마도9의사’라고 한다.

구한말 일제에 의해 체포된 의병 가운데 국외로 끌려간 경우는 1906년 대마도에 억류된 의병이 유일하다. 문석환·남규진·신현두·최상집이 1908년 음력 9월 14일(양 10월), 유준근·이식·이상두가 1909년에 석방되었다.

대마도에 억류된 9의사와 가장 연고를 많이 가지고 관심을 가졌던 국내 인물 중의 한 사람이 보령의 윤석봉(尹錫鳳, 1842-1910)이었다. 경기도 양주에서 남포현(보령 웅천)에 낙향한 이 지역 화서학파의 종장인 윤석봉은 1898년 웅천 대천리에 집성당을 세우고 강학하면서 위정척사의 항일활동을 전개한 학자였다.

윤석봉은 자신도 1906년 병오홍주의병진에 민중식의 초청으로 참여하였다가 홍주에서 체포되어 경성일본군 사령부로 끌려가 심문을 받은 후 석방되었다. 그러나 함께 체포되어 끌려갔던 9명은 대마도로 유배되었다. 특히 유준근·이식·신현두·문석환·남규진은 서울 경성사령부 감옥의 같은 방에 수감되어 고생을 함께하면서 옥중에서도 의를 강마하고 죽고 사는 것을 함께하기로 하기도 하였다. 유준근·이식·문석환은 집성당의 제향에도 참여하였으며, 문석환은 윤석봉에게 수학하기도 하였다. 또 윤석봉 사망 시에는 이식과 문석환은 제자의 의리로 각각 3개월의 상복을 입었다. 그리고 윤석봉은 최상집과도 교분을 가져 최상집이 1909년 회갑을 맞이하였을 때 회갑을 축하하는 수연시(壽宴詩)를 지어 주기도 하였다. 또 이상구는 유준근의 재종형인 유효근과도 친분이 두터웠고, 안항식의 조카인 안병찬은 유효근이나 윤석봉과도 교분이 상당하였다.

#### 4) 군대해산 이후의 의병(정미의병)

1907년 고종의 강제 퇴위와 군대해산을 계기로 의병운동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해산된 군인들이 근대적 무기를 가지고 지방에 내려가 의병에 가담함으로써 의병부대의 규모가 커지고 무장과 조직을 강화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리하여 전면적인 항일전으로 확대되었는데 이것이 정미의병(丁未義兵, 1907)이다.

군대해산 이후 충남지방에서의 의병활동은 큰 조직에 의한 의병활동이 아닌 소집단 활동으로 전개되었다. 특히 서민층에서 활발히 전개된 점도 눈에 띄는 현상이다. 이들은 각지로 돌아다니며 주민들을 상대로 군자금 등을 모으는 데 힘썼으므로 당시의 기록은 약탈을 일삼는 폭도로 규정하고 있다.

군대해산 이후 전국적으로 의병활동이 활발해지자 일본은 이들을 폭도로 규정하고 수비대·헌병대·경찰을 동원하여 토벌하였다. 일본군경에 의하여 토벌된 보령지방의 의병활동은 다음과 같다.

### 보령지방 의병 토벌 개황표 (1908년 4월~12월)

토벌을 위해 파견된 부대(병력)	총돌일자	총돌장소	의병수	의병의 손상
남포헌병분견소 헌병3명	5월28일	남포	약 60	사망 3
청양헌병분견소 헌병3명	6월 8일	보령	약 60	사망 2
남포헌병분견소	6월 20일	남포동방 약30리	약 100	사망 14
남포헌병분견소	9월 14일	남포남방 약30리	약 40	사상 29
남포헌병분견소 헌병7명	9월 20일	남포남방 약50리	약 70	사망 19
남포헌병분견소	9월 23일	남포	약 40	사망 4
남포헌병분견소	1909.4.29	남포동남 약40리	약 20	사망 5

이외에 『한국독립운동사』에 기록된 의병상황은 다음과 같다.

- 1908년 4월 5일 남포군 북외면 풍년동(남포동방 약20리)에서 의병 150여 명이 일본헌병과 교전하다가 저녁에 종적을 감추었는데, 그들은 모두 백의(白衣)를 입고 총기 40여 정을 가지고 있었다.
- 1908년 4월 28일 남포분견소 헌병 5명은 남포의 동방 약30리 북두산(北斗山)의 중북에서 의병 60명과 충돌하여 그중 11명을 죽이고, 노획품으로 화승총 7정, 탄약 약간, 잡품 다수가 있었다.
- 1908년 6월 28일 1907년 이래 홍산군을 중심으로 하여 보령·남포·서천·비인·한산과 그 밖의 청양·정산에 걸쳐 활동하던 의병 수장 이도일(李道一)은 민종식과 최익현의 의거 때 궤의 휘하에서 홍주성을 농수(籠守)하다 체포되어 형을 언도받은 뒤에도 지방의 의사들을 규합하여 5·60명의 수장이 되고, 남포 습의면의 지식홍(池錫弘)이 이끄는 의병과 합쳐 혹은 보령군 청라의 이소선(李小善) 등과 호응하여 의병이라 자칭하고 비인분견소 및 학교를 습격하기를 두 번, 기타 청양 임천 등 각처에서 일본인과 한국인을 습격한 일은 매거(枚擧)할 수 없으나 이도일은 지리에 정통하여 신출귀몰 교묘히 종적을 감추었다.
- 1908년 8월 24일 의병 70명이 보령읍에 내습하여 우체소와 순사주재소를 불태웠다.
- 1909년 2월 12일 남포군 웅천면 와룡리 김직제(金直濟)의 집에 전라도 의병 문대장(文大將)이라 칭하는 6명이 침입하여 군수금(軍需金)으로 150원을 강요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인근지역에서 재물을 약탈하였다.

○ 1909년 11월 22일 보령군 청소면 성동(城洞)에 의병 6명이 내습하여 민가의 재물을 약탈하였다.

1908년에서 1909년에 이르는 시기에 보령지방의 의병활동은 소규모의 집단으로 그 빈도가 많았다. 특히 남포지방에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들은 특별한 지도자가 없는 서민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일본군경을 크게 괴롭혔던 것이다, 1908년 전반기의 전국 의병 도별조사의 보령지역 상황은 다음과 같다.

출신	성명	출생지	병력	활동지역 및 계통
進士	李聖民	藍浦	약 27~80	충남 남포지방
商人	池順化	藍浦	약 60~70	충남지방
常民	池成用	藍浦良峙	약 80	공주의병장
	李道一	舒川文章		공주의병장
	沈順化(?)	藍浦郡	약60	공주 李道一의 참모
平民	池錫弘	藍浦佛恩燕巖里		홍산지방
	白汝佐	舒川楓洞		홍주·보령·남포·청양 大將(55세)

이밖에 1907~1909년 사이에 폭도(의병)로 판결 받은 보령지역의 상황은 다음과 같다.

성명	주소	형량	년월일	활동상황
李鍾國	藍浦	교수형	1907.7.13	1906년 청양 홍산 등지에서 李小仙 의병진에 입진하여 30여명의 의병과 함께 총기로 무장하고 남포 비인 등지의 일본군 분견소를 습격하고 충남일대에서 무기와 군자금을 모집하다가 체포되어 강도로 몰려 사형
朴正文	藍浦 東面 良峙	징역 10년	1908.10.9	朴一福의 부하로 군자금 모금, 잡화상
朴一福	藍浦 元頭 桃花溪	교수형	1908.11.30	申如道 모임에 가입, 의병활동, 상인
李鳳來	鰲川 川北 河滿	태형 1백대	1909.12.17	
成周京	鰲川		1909.4.23	군자금 모금 중 일경과 교전 중 전사
尹昌榮	藍浦	징역 7년	1909.4.30	군자금 모금하다가 피체
白萬己	藍浦	태1백대	1909.4.30	지석홍 의진 참여, 군자금 모금
李鍾甲	藍浦	징역 7년	1909.4.30	군자금 모금
張錫弘	藍浦郡 熊川面 廣岩里	징역 7년	1908.9.23	일본인살해 목적의 무리를 모집하여 십 수명이 총기를 휴대하고 남포 서산 군내를 배회 수개월 간 소요
崔正甫	남포 습의면 유곡	태1백대	1908.9.16	이소선 의진 가입활동
韓憶東	남포 심전면 금당	징역 1년	1909.4.12	지순화(池順和)의진에서 활동

1909년 이후의 우리나라 의병활동은 일제의 진압으로 국내에서는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만주나 연해주로 넘어가 독립군 항쟁으로 이어졌다.

## 5. 국채보상운동과 보령

러·일전쟁 이후 일제는 화폐정리와 시설 개선 등의 명목을 내세워 우리 정부로 하여금 일본으로부터 거액의 차관을 들여오게 하였다. 그것은 대한제국을 일본에 예속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1907년까지 일본으로부터 들여온 차관 총액은 대한제국의 1년 예산과 맞먹는 1,300만원에 달하였다. 1907년 1월 대구광문사에서 회명을 대동광문회로 개칭하기 위한 회의가 전개되었는데, 이 회의 끝에 사장 김광제와 부사장이었던 서상돈이 국채 1,300만원을 갚지 못하면 장차 국토라도 팔아서 갚아야 하므로 이천만 동포가 담배를 석 달만 피우지 말고 그 대금으로 국채를 갚자고 제의함으로써 시작되었다.

국채보상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하기로 한 후 사장 김광제는 국채보상취지서를 작성 발표하였다. 즉 발기인의 취지서는 무능한 정부에 나라의 존망을 맡기지 말고 국민들이 단결하여 국채보상을 추진하여 국가주권과 국민주권을 찾자는 내용이었다.

이 운동은 대구에서 처음 시작되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온 국민이 참여하여 20만원의 자금을 의연금으로 모았다. 의연금을 자진하여 납부하였던 계층은 귀족이나 부유층보다는 일반 서민층이 많이 호응했다. 국채보상기성회와 각종 애국계몽단체 및 언론기관이 거족적인 모금운동을 벌였다. 그러나 일제는 국채보상금 횡령 사건을 날조하는 등 탄압을 자행하여 이 운동은 중단되고 말았다.

이 운동을 주도한 김광제는 보령 웅천 평리에서 태어나 일찍이 무과에 급제하고 관직에 나갔다가 동학군 진압 및 의병운동에 참여하기도 했고, 을사조약이 맺어지자 이에 항거하는 상소를 올린 후 관직을 사퇴하고 대구 광문사의 사장으로 일하고 있었다.

충청도 지역에는 1907년 4월부터 보은군, 청주군, 옥천군, 서천군, 한산, 금산군, 덕산, 영동군, 진천, 공주군, 제천 등에 보상소가 설립되었고, 1907년 5월 말까지 충남지역의 모금된 액수는 156,698원 55전이였다. 보령지역은 7월 이후에 참여자를 확인할 수 있다. 보령지역의 참여자 수는 당시 황성신문에 의하면 182명이고 약 243원 61전이 모금되었다.

보령지역의 국채보상운동 의연금 참여현황은 당시 보도되었던 황성신문을 통하여 살펴볼 수 있다.

藍浦郡 熊川面 花望里 : 黃稷 1圓  
                   思川 : 尹命五·鄭冀煥 各 2圓50錢  
                   古邑面 水岸里 : 金賢貞 20錢  
                   新安面 坪村(1환), 月溪(1환30전), 영전(令田) 4환69전  
                   邑內面 南溪里 : 崔昌均 2환  
 이상 황성신문 1907년 7월 15일자.  
 桃源里 : 李龜善 2환

- 竹 林 : 鄭奎永 1원, 李根馨 50원, 申允培 30전  
 印鼎夏 · 申東夏 · 申允熙 · 申寅湜 · 申寬圭 · 申炳湜 · 金柄吉 各 20전  
 申碩圭 · 申明圭 · 申承圭 · 申九湜 · 申東漢 · 趙英泰 · 趙容九 · 金壽甲 · 宋順鐸 ·  
 朴熙甫 · 申丁湜 · 任成琦 · 申東俊 · 申允載 各 10전  
 蔡○老 5전
- 伏兵里 : 金箕冕 2원,  
 李商鎬 1원, 金在漢 · 金商益 · 金商訥 · 金商哲 各 10전  
 洞中 1환
- 屯 堡 : 李舜九 50전  
 李大奎 · 李建雨 · 李龍植 · 李鳳奎 · 李廷薰 · 李範雨 · 李榮夏 · 李翼鉉 · 俞鎮億 ·  
 宋鍾文 · 강炳壽 · 李在高 · 李應璇 · 金商滿 · 金祿成 · 崔正用 各 10전  
 趙張元 · 金榮鎮 · 李龍珪 · 金泰星 各 5전
- 侍郎洞 : 趙辰元 20전  
 白樂浩 · 白樂信 · 梁在元 · 金善必 · 梁在會 · 梁在豐 · 白樂鳳 · 白南熙 · 趙孝本 ·  
 金漢同 · 南學根 · 尹在星 · 梁在滿 各 10전  
 金必成 · 李致周 各 5전
- 蓼 洞 : 李鍾元 · 田能圭 各 40전  
 李圭成 · 李圭白 · 李圭鳳 · 李圭璧 · 梁洛鎮 各 30전  
 李圭植 · 李鍾律 · 李鍾文 · 梁龍鎮 各 20전  
 李圭實 · 李鍾和 · 李圭日 · 李鍾學 · 梁○鎮 · 梁箕鎮 · 梁商鎮 · 강秀天 各 10전
- 東山里 : 申○澈 · 李鍾應 · 申東玉 各 50전  
 申爽澈 · 申東翰 · 申希澈 各 30전  
 黃爽顯 · 白南貞 · 申東益 · 申東升 · 權三豐 · 趙炳龍 · 元竣鐵 · 金來基 · 白南淳 ·  
 黃日顯 · 李鳳九 · 金濟榮 · 宋秉殷 · 柳東理 · 박○돌 · 南鶴基 · 崔俊奉 · 文○奉 各 10전
- 長尺面 新里 : 李召史 1원  
 李文淵 · 宋錫朋 · 金周佰 各 20전  
 宋文會 · 李學淵 · 李瑞浩 · 卜仁奉 各 10전  
 嚴學先 · 金聖玄 · 金洪云 · 金富孫 各 5전
- 眞木亭 : 李源用 60전  
 金濟舜 50전  
 李元極 · 金賢植 · 尹哲淳 · 金在履 各 20전  
 朴淵鎮 · 朴官源 · 李士述 · 金鳳植 · 崔鳳汝 · 劉春三 · 申相敦 · 趙春化 · 趙在信 ·  
 崔舜五 · 金元實 · 金宗實 · 金在東 · 金尙東 · 金萬吉 · 李永用 · 金月三 · 姜水同 ·  
 高三植 各 10전
- 于羅面 伊川 : 李熙甲 3원  
 申元均 1원  
 梁南實 · 申順甫 各 30전  
 金演九 20전  
 金佑卿 · 金仲吉 · 李元敬 · 金春成 · 閔敬三 · 李成日 · 尹化信 · 金德汝 · 李三奉 ·  
 孫仲甫 · 李德官 · 金元玉 各 10전  
 金庵里 : 金彰植 30전  
 金民濟 · 林思允 · 金東一 · 李海奉 · 朴臣圭 · 洪聖煥 · 李在文 · 李在武 · 梁魯○ 各 10전  
 합계 243원 61전